물고기도 못사는 영산강 서창교 수질

올 23일간 용존산소량 3㎎/ℓ 이하…떼죽음 원인 가능성 커

승촌보 건설로 유속 저하·수질오염·유기물질 유입 등도 영향

#. 지난 9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서창교 아래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다. 광주시와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폐사한 물고기 750마리 등을 수거했다. 폐사한 어종(魚種)이 오염된 물에서도 비교적 잘 견딘다는 붕어와 잉어 외에는 없었던 점 등으로 "미스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당국은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용존산소량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분석중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일 발견된 어류의 폐사 원인과 관련, 용존산소량 부족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15일 밝혔다. 폐사 시점은 발견되기 1주일 전인 지난 2일께로 추정했다.

환경 당국은 물고기 폐사 추정 시기에 서창교 지점 영산강 용존산소량이 3㎎/ℓ 아래를 유지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지점의 용존산소량은 ▲지난달 30일 2.9㎎/ℓ ▲31일 1.2㎎/ℓ을 기록했다. 용존산소량은 물속에 포함된 산소량을 나타내며 수질 오염의 중요 지표로도 사용된다. 통상 용존산소량이 3㎎/ℓ 아래로 떨어지면 어류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때 뿐 아니다. 영산강 서창교 등 특정 구간에서는 봄·여름철 물고기 서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질 오염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상태다.

올 들어 서창교 지점 영산강의 용존 산소량의 경우 3㎎/ℓ 아래로 떨어진 날이 무려 23일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23일, 지난 2013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3일이나 용존산소량이 3㎎/ℓ 아래를 기록하는 등 어류 서식 환경에 부적합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 박준택 소장도 "용존산소량 감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면서 "독성물질이 유입됐을 경우 비 오는 날을 택했을 것이고, 작은 물고기가 주로 죽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작다. 수질환경에 민감한 다른 물고기는 미리 피했거나 서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승촌보 건설에 따른 유속 저하도 용존 산소량 부족 현상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한 것 아니냐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승촌보 건설에 따른 유속 저하를 비롯, 유속 저하로 인한 강 바닥 토양 오염물질 축적 현상과 지류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질 등이 더해지면서 오염이 심해졌다는 것으로, '영산강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보(洑·댐) 건설 사업의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용존산소량 부족 외에도 독성물질 유입이나 어류 질병에 따른 폐사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독성검사)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질병검사)에 수거한 붕어를 보내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18 해짐 19:49 달뜸 05:02 달짐 19:19

불쾌지수 높아요

가끔 구름이 많고 동부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우량 5~30㎜.

◇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음	20/30	보 성	구름많음	19/27
목 포	구름많음	20/26	순 천	가끔흐리고비	21/28
여 수	구름많음	20/24	영 광	구름많음	19/28
나 주	구름많음	20/31	진 도	구름많음	18/26
완 도	구름많음	19/27	전 주	구름많음	20/30
구 례	가끔흐리고비	21/30	군 산	구름많음	19/27
강 진	구름많음	20/28	남 원	가끔흐리고비	18/29
해 남	구름많음	19/28	흑산도	구름많음	17/22
장 성	구름많음	19/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먼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북동	0.5~1.5
	먼바다(서)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1:53	07:09
	13:54	19:13
여수	08:47	02:41
	21:21	14:46

◇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운동	40
빨래	70

◇ 주간 날씨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0/30	19/31	20/29	19/27	19/29	19/29	19/29

대형 유치원 보직교사 '3인 이상'으로 늘린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학급 이상의 대형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의 경우 3명을 배치할수 있다는 규정을 '3인 이상'으로 바꿨다.

경기도 등에서 12학급보다 학급이 훨씬 많은 유치원이 생기면서 보직교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206개로 전체의 2.3%이다.

보직교사는 원아들을 가르치면서 관리업무도 하는 교사로 보직수당과 승진 가산점 등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치원에 보직교사가 늘어나면 유치원 운영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때 관할 교육청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 학급편제 및 정원 ▲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 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등의 변경은 지금처럼 사전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조치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창포물에 머리감고 15일 광주시 북구 평촌마을 반디광장에서 단오(20일)를 앞두고 '단오 세시풍속 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충효분교 학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법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문제 없다"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측, 주총결의 부존재 소송서 패소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해당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주총장에서 이러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러한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고,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性 피하지 마세요"

광주 여성민우회, 성교육 강좌 '통 하였느냐?'

학부모·청소년 함께 질의 응답·토론형식 진행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자꾸 방문을 잠가 둬요." "부끄러워서 엄마, 아빠에게 성(性)에 관한 질문은 못 하겠어요."

광주 여성단체가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성교육 강좌를 진행한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15일 성교육 강좌 '통(通)하였느냐?' 수강생을 모집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상으로 참가자들은 교육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다른 교실에서 '또래 성교육', '부모 성교육'을 나눠 받게 된다. 감추지만 말고 드러내놓고 자유롭게 얘기하자는 게 여성민우회의 강좌 추진 배경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중·고등학생 26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휴대전화로 '19세 미만 이용불가 만화·소설·사진·동영상'을 10회 이상 본 경우는 전체의 13.1%(342명)를 차지했다.

민우회는 딱딱한 기존 강의 방식을 벗어나 질의 응답과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묻지 못했던', '아이에게 답하기 곤란했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성문화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아동·청소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학부모는 성에 관한 자녀의 질문에 알맞게 대답하고 자녀의 돌출 행동에 대응하는 요령 등의 조언을 받는다.

강사진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성강모'(성교육 강사단 모임) 회원들이 맡았다. 문의 062-521-1360.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